

## 대한적십자사 원주 혁신도시 이전 첫 삽

대한적십자사가 원주 혁신도시에서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이전 준비에 들어갔다.

대한적십자사(총재:유종근)는 13일 오후 혁신도시 신사옥 부지에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김기선 이강후 국회의원, 최두영 도 행정부지사, 채병두 원주시의장, 박용훈 원주 부시장, 곽도영 구자열 도의원 등 기관단체장과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가졌다.

대한적십자사는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산림항공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이어 네 번째로 신청사를 착공하게 됐다.

유종근 총재는 “신사옥은 대한적십

자사의 새로운 도전을 수행할 뜻깊고 상징적인 역사의 현장이 될 것”이라며 “시민과 이전 공공기관들과의 화합을 통해 건강도시 원주 발전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적십자사가 원주 혁신도시에 조기 안착해 원주시의 진정한 가족이자 동반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치하했다.

박용훈 부시장은 “원주 혁신도시 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도시로 원주시민 모두가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이명우기자 woolee@kwnews.co.kr

▶ 이 기사는 강원일보TV(www.kwnews.co.kr)로도 볼 수 있습니다

## ◇정동기대한건설협회도회



장은 14일 오후 6시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협회 시·도회장 회의에 참석해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

# 원주~강릉 복선전철 입찰방식 촉각

## 이달중 공고되는 1~5·11공구 분할여부 등 미정 건설업계 “사업윤곽 안드러나 입찰 준비 어려움”

원주~강릉 복선전철사업에 대한 도내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당초 6개 공구가 잔여분으로 남아 있는 이 사업에 대한 계약 방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건설업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최저가 낙찰제 방식인 원주~강릉 복선전철

공사 1~5공구와 11공구 집행이 이달 중 예정돼 있다.

특히 이 공사는 공구 분할 여부와 주계약자 공동계약 방식 적용에 따른 부계약자가 어떤 공종으로 정해질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공구 분할은 당초 6개 공구를 더 세분화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구별 설계금액은 2,000억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공구 발주에 주계약자 공동계약 방식도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앞서 철도공단은 원주~강릉 복선전철 7·9·10공구 노반 신설공사에 주계약자 공동계약 방식을 적용했다.

철도공단이 조달청의 총사업비 검토금액에서 얼마를 더 사정한 설계금액을 산출할지도 주목된다. 설계금액 산출에 따라 도내 건설업체의 참여지

분에 따른 수주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공구별 총사업비 검토 금액을 △1공구 2,566억원 △2공구 2,638억원 △3공구 4,391억원 △4공구 3,608억원 △5공구 2,001억원 △11공구 5,619억원 등으로 산출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주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공구 분할 발주는 환영하지만 이달 중 공고될 사업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 입찰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황영조 바르셀로나올림픽 마라톤 제패 기념 제21회 강원역전마라톤대회 첫날 경기가 고성~강릉 구간에서 열려 선수들이 속초시청 앞을 출발하고 있다. 속초=권태명기자 kwon80@kwnews.co.kr

# 강릉·평창선수단 첫날 선두 질주

〈1부〉 〈2부〉

## 제21회 강원역전마라톤대회

강릉과 평창이 '황영조 바르셀로나올림픽 마라톤 제패 기념' 제21회 강원역전마라톤대회 첫날 레이스에서 각각 1, 2부 선두를 달렸다.

강릉선수단은 13일 고성군청 앞을 출발, 속초와 양양을 거쳐 강릉시청 앞 광장으로 끝나는 1일차 32.1km 코스를 1시간50분00초에 주파하며 1부 선두에 이름을 올렸다. 강릉은 한국전력 이연라이 첫 주자로 나서면서 마지막 주자인 강릉중 어철우가 어깨띠를 이어받아 끝인하면서까지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아 대회 5연패 기대감을 부풀렸다.

원주선수단은 마스터스마라톤의 달인 윤행남이 첫 주자로 나선 뒤 중반 상지여중 이미은이 2위로 끝인하



**고성군청 앞 출발 시총** 첫 구간인 고성군청 앞에서 황중국 고성군수, 이인영 강원일보 전무이사, 정동기 도육상경기연맹 회장, 홍순광 고성경찰서장, 김원기 고성군 육상경기연맹 회장 등이 출발 시총을 하고 있다.

는 등 삼척 춘천 등과 각축전을 펼친 끝에 1시간52분21초로 결승라인을 통과, 2위로 마무리했다. 뒤를 이어 1시간54분07초의 속초와 1시간57분30초를 기록한 춘천이 각각 3위와 4위로 첫날 레이스를 가볍게 마쳤다.

지난해 우승팀인 2부 평창선수단

은 1시간53분54초를 기록하며 대회 4연패를 향해 순항했으며 양양선수단이 선두에 1분23초 늦은 1시간55분17초로 역전우승의 희망을 이어갔다. 평창선수단은 이날 스키의 고장 출신 최태순이 2위로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며 서서히 레이스를 펼치

더니 마지막 주자로 나선 진부중 김민우가 4.2km를 가장 빠른 14분28초로 끊으며 첫날 1위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평창의 정동진과 김민우는 구간상을 거머쥐었으며 양양의 김만서는 2위와 함께 구간 우승을 차지하며 두 배의 기쁨을 누렸다.

3위는 고성이 1시간55분34초로 3위에 올랐으며 정선이 1시간57분46초를 기록, 그 뒤를 이었다.

대회 이틀째인 14일에는 오전 10시 강릉시청 앞을 출발해 동해와 황영조의 고향 삼척을 거쳐 끝인지점인 태백 황지주유소에 도착하는 25.7km 구간에서 시·군 간 명예를 건 레이스가 이어진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 이 기사는 강원일보TV(www.kwnews.co.kr)로도 볼 수 있습니다.

# 동계오륜 매년 500억 이상 도비 투입

## 도, 2014년부터 3년간... 재정부담

2014년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에 매년 500억원 이상 도비가 투입된다.

이는 도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예산 2000억원의 25%에 해당되는 규모로 재정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관련 경기장과 진입도로 등 시설 공사를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착수해 프레올림픽이 열리는 2017년 이전에 모두 끝낼 계획이다.

도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지난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출한 비드파일에 따르면

경기장 조성 5404억원, 진입도로 3748억원 등 총 9152억원을 사업비로 책정했다.

경기장 조성 사업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 지원특별법에 따라 지방비 25%, 진입도로는 지방비 30%를 부담해야 한다.

비드파일대로 하면 도비는 2014년 550억원, 2015년 487억원, 2016년 593억원이 들어간다.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도비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더욱이 동계올림픽을 위한 환경정비 사업도 실시될 경우 도비 부담액은 더욱 증가된다.

도는 올 상반기 동계올림픽 주개

최지와 인근 지역인 원주 횡성 강릉 평창 정선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정비 사업에 모두 1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림픽특구 지역내 포함되지 않은 곳은 특별법에 근거한 환경정비 사업비를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결국 지방비를 투입해 환경정비사업을 벌일 수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본격적인 동계올림픽 관련 공사가 시작되면 2014년부터 매년 500억원 이상의 도비가 투입될 것"이라며 "특별법에 따라 일정부분 국비를 지원받지만 열악한 강원도 재정 여건상 지방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은복